식사부터 예체능 교육까지…보리수아동센터의 동행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④ 미래세대 키우는 보리수아동센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보리수아동센터는 주 5일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요일마다 식단을 달리해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미술 수업은 주 2회 전문 한국인 단원이 지도한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육 수업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한편,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자신감을 키운다.

아름다운동행, 2024년 개원
취약 아동 80~90명 정기 이용
주 5일 급식에 미술 · 체육 · 학습
"배움 · 놀이로 도전 정신 키우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므와송가 마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한 권을 4~5명의 학생이 함께 사용한다. 수업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해 집에서 복습하기도 어렵다. 한 교실에 100여 명이 모여 수업을 듣고,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미술과 음악, 체육 수업에 필요한 교구는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넉넉하지 않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은 2014년부터 탄자니아에서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인 '해피콘(HAPPY CORN)'을 진행하며 이 같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활동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지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름다운동행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 후에 찾아와 식사하고 공부를 보충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공간을 구상했다. 그렇게 2024년 문을 연 곳이 탄자니아 보리수아동센터다. 2016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세운 아름다운동행이 대학 인근 마을의 아동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관을 확장한 것이다.

보리수아동센터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머물며 식사와 학습 보충,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한 끼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먹고 배우고 노는 공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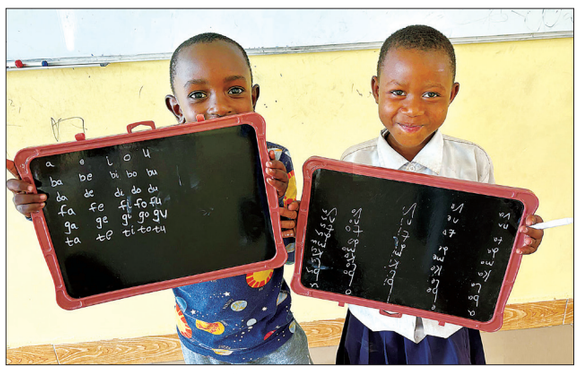
개원 3년 차에 접어든 보리수아동센터는 므와송가 지역의 3~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아동 가운데는 5~10세가 가장 많다.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는 아동은 80~90명이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약 130명이 센터를 거쳐 갔다. 이용 아동의 약 98%는 취약계층이다.

처음 센터를 찾은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이용 허락을 받고 약 10일간 꾸준히 출석한 뒤 신상카드를 작성해야 정식 등록된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센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식사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며 밥과 콩을 비롯해 소고기 스튜와 달걀, 닭고기, 과일 등을 요일별로 식단에 올린다. 금요일에는 주스와 비스킷도 함께 제공한다.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술 · 체육…배움의 즐거움 키우다

보리수아동센터는 주 2회 미술과 체육 교육을 하고 주 4회 학교 공부를 보충한다. 방학에는 한국어와 음악 수업도 진행한다. 예산이 허락하면 연간 한두 차례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고 체육대회와 설날 행사를 마련한다. 교과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와힐리어 읽기와 쓰기 교육도 진행한다. 읽고 쓰지 못했던 아이들도 보충 수업을 통해 점차 글을 읽고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



방학기간에는 음악 수업을 마련해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운영은 한국인 단원 2명과 현지인 직원 3명이 맡고 있다. 학습 보충 아이들 수준에 맞춰 진행하며 미술과 체육 수업은 관련 분야의 한국인 단원이 현지 직원과 함께 이끈다.

예체능 교육은 센터가 특히 힘을 쏟는 분야다. 현지 학교에서 미술과 음악, 체육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운 만큼 센터에서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교육의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수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스와힐리어를 읽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숫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읽고 연산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아동이 늘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모습도 보인다.

잘 먹고, 배우고, 친구들과 놀아서일까. 개원 초기와 비교해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롭게 찾는 공간되길

보리수아동센터가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을 돕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교식과 식당이 좁고 교육 인력도 부족해 이용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센터에서 거리가 먼 아이들까지 지원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통학을 돕는 차량도 마련해야 한다.

예체능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분야의 봉사자와 교육 기자재 확보도 필요하다.

조용진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장은 "센터가 바라는 미래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오는 곳이 아니라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찾아와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또래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역의 배움터로 자리 잡고 싶다"고 말했다.

따뜻한 한끼 '해피콘'

해피콘은 아름다운동행이 2013년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 시작됐다.

초기에는 보리가람대학 인근 4개 학교 아동 약 2500명에게 오전 10시 비타민과 칼슘이 함유된 영양죽을 제공했다. 옥수수와 쌀가루, 설탕, 마가린 등을 활용해 만든 영양죽은 수업 중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었다. 사업을 이어가면서 아동의 출석률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후원이 늘면서 지원 학교도 확대됐다.

현재는 정기후원자 약 170명의 도움으로 10개 초등학교 약 5800명의 아동에게 주 5일 영양죽을 제공하고 있다. 사찰이 직접 지원할 학교를 지정해 참여하는 등 후원 방식도 다양해졌다. 해피콘은 한 끼의 영양죽을 통해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 33원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아동 영양급식 지원

아이들을 지켜주는 한 컵의 옥수수죽 해피콘



10개 초등학교 5,700명 지원

칼슘·비타민 등 영양 섭취

초등학교 출석률 증진

해피콘 후원 바로가기 ▶

문 의 02-737-9595 | 홈페이지 www.dreaminus.org